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나은숙 · 정익중 · 이봉주 · 김예성 · 김광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I. 문제제기

200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l391.org/>)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 보면 2003년 4,330건, 2004년 5,764건, 2005년 6,659건으로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례유형에 있어서는 방임이 2,416건(36.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서학대가 2,034건(30.5%), 신체학대가 1,728건(26%), 성학대 305건(4.6%), 유기 176건(2.6%)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신체학대가 정서학대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04년부터는 정서학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언론보도나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정 내에서의 신체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정서학대는 학대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향에 의해 일반가정에서도 부모에 의해 정서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서학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정서학대나 방임은 신체학대보다 아동의 학업성취능력과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rt & Brassard, 1991; Schneider, Ross, Graham & Zielinski, 2005).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정서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동들은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보다 더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협박과 욕설 등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뿐 만아니라 아동들을 우울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안동현 외, 2003).

아동의 우울불안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Asarnow, Carson & Guthrie, 1987; Kaslow, Rehm & Siegel, 1984)들은 우울한 아동은 인지적 영역에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지각하며, 도전적인 학교과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초등 4, 5학년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였다(Kaslow,

Tanenbaum, Abramson, Peterson & Seligman, 1983; Elliot, Sherwin, Harkins & Marmarosh, 1995),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아동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이후 사회적 지위획득과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Duncan & Brooks-Gunn, 2000; Haveman & Walfe, 1994),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은 다른 사회에 비하여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영화, 1990).

Bandura(1997)는 사회인지이론에서 인간 행동의 결정요인이 환경의 일방적 영향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결정론을 제시하였다.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는 자기효능감 이론은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이 질적으로 혁신되고 창조적인 거듭남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기효능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학대와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학대와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학대 및 방임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본 연구와 학대 및 방임과 학업성취간의 매개변수를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학대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연결 짓는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이 학대 및 방임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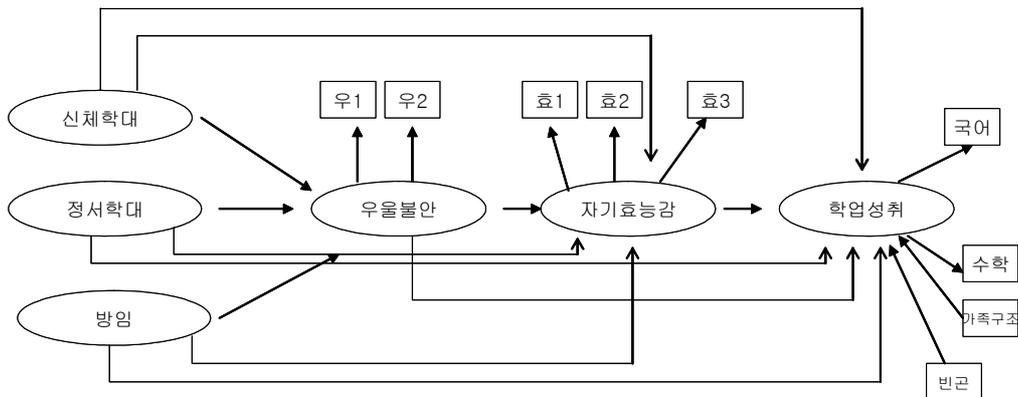
1. 학대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 우울불안과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3. 학대와 아동의 학업성취 경로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론적인 연구모형에서는 학대(신체, 정서, 방임), 우울불안,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우울불안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경로, 학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모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한 후 이론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미도 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제거하는 과정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의 모델 개발 전략에서 모델 생성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에 해당한다(배병렬,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과 비교 모델로 상정된 모델들은 동일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 하되, 경험적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간명 하면서도 이론적 설명력은 고루 갖춘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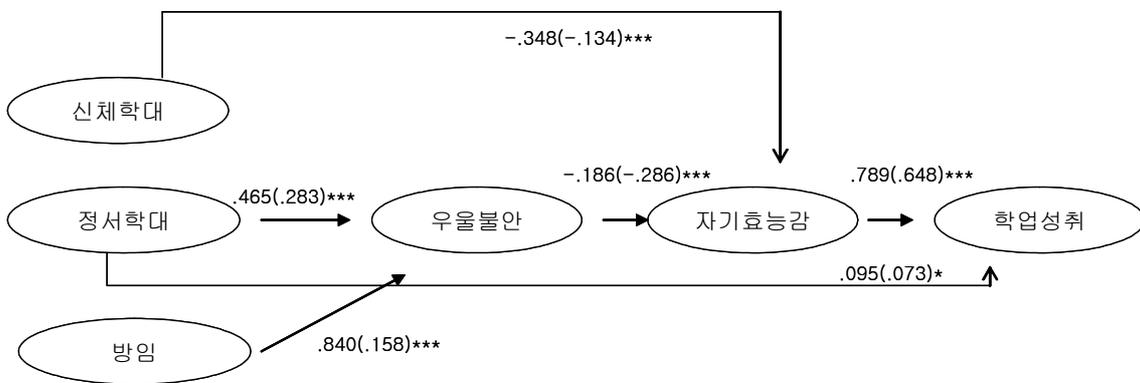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2차년도 자료이다. SPSC는 2004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인 K구를 선정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되,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11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초등학교에서 2005년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 전수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아동 설문지는 조사원이 학급상황에서 집단면접을 수행하였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기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분석결과 최종 모형B의 적합도는 $\chi^2=2440.406(df=246)$,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교적 좋은 적합도(NFI=.976, CFI=.978, TLI=.974, RMSEA=.071)를 보여 모형B 또한 자료에 합치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형B의 SMS(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450으로 모형B에 포함된 변수들의 최종산물인 학업성취를 45%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모형B의 분석결과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 한 후에도 수정모형의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에서는 동등하지만 좀더 간명도를 확보한 최종수정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도 모형 수정에 따른 적합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NFI, CFI, TLI, RMSEA 등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최종수정모형이 조금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원모형과 최종수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CFI	NFI	TLI	RMSEA
원모형	2433.909(df=240,P=.000)	.978	.976	.973	.072
최종수정모형	2440.406(df=246,P=.000)	.978	.976	.974	.071

이와 같이 두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형B가 최적의 설명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주요한 경로가 빠짐없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력도 높은 최적의 모델로 평가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기존에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보다 많이 논의되었던 우울불안과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반하여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우울불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모형화한 후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아동패널의 2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서학대, 방임이라는 위험요소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정서학대는 학업성취도에,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체학대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정서학대와 아동의 우울불안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적모델로 판명된 간명한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086), 정서학대(.020), 방임(-.029), 우울불안(-.286), 자기효능감(.648)으로 나타나서 학대 및 방임아동의 학업성취 경로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재주가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거나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발달단계상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있으므로, 학대 및 방임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서학대나 방임이 신체학대보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부모나 교사가 정서학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생각해본다면 정서학대와 방임의 학대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학대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 및 방임 아동에 대한 개입이 경제적 지원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아동의 발달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자로서 양호교사의 역할개발 및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학교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신체적 변화와 학업에 대한 점차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정서학대 및 방임 아동의 경우는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나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시기 아동들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상담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감소하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우울의 정도가 낮았으며 더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활용한다고 한다(Bandura, 199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학습과정을 지각할 때 자기 효능감이 유지되고 동기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화(1990).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배경의 영향 추이(1967~1984)”. 교육학연구, 제 28권 3호, 65-81.
- 안동현 외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사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 연구, 제7권 1호, 121-139.
- 임미향·박영신·김의철 (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5권 1호, 53- 67.
- 조옥자·현온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고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6권 3호, 141-161.
- Asarnow, J. R., Carson, G. A.,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박영신·김의철(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건강·운동·조직에서의 성취. 교육과학사.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 269-290.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lliot, T. R., Sherwin, E., Harkins, S. W., & Marmaarosh, C. (1995). Self-appraised problem-solving ability, affective stat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05-115.
- Hart, S. N., & Brassard, M. R. (1991). Psychological maltreatment: Progress achieve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61-71.
- Haveman, R., & Walfe, B. (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slow, N. J., Tanenbaum, R. I., Abramson, I. Y.,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3). Problem solving defici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childr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497-502.
- Kaslow, N. J., Rehm, I. P., & Siegel, A. W. (1984). Social cogni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605-620.
- Schneider, M. W., Ross, A., Graham, J. C., & Zielinski, A. (2005). Do allegations of emotional maltreatment predict developmental outcomes beyond that of other for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9, 513-545.